

“나주의 보물이었네”...700살 은행나무·400살 해송

시, 보호수 등 891그루 조사용역
전설·민담·설화 등 이야기 발굴
데이터화·책 발간 관광자원 모색

나주시가 수백 년 세월을 간직한 보호수, 노거수, 천연기념수목 등 수목에 얽힌 이야기를 발굴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운다.

나주시는 최근 청사에서 '나주시 보호수 등 조사연구 용역' 착수보고회·지문위원회를 열고 관내 수목 819그루에 대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기초조사를 통해 대대로 기록이나 구전으로 전해오는 수목의 전설, 민담, 설화 등을 발굴해 나주시만의 특색있는 관광·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각 읍·면·동에 있는 보호수를 데이터화하고 대표 수목 선정, 테마지도, 이야기책, e-book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나주는 전라도 지명의 중심지이자 목사고을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와 더불어 전국에서도 보호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다.

'금성관 뒤편 700년 된 쌍둥이 은행나무'를 시



나주 금성관 뒤편에 있는 수령 700년 된 쌍둥이 은행나무(왼쪽)와 나주목사내아 벼락 맞은 팽나무.



(나주시 제공)

작으로 “나주목사내아 벼락 맞은 팽나무”, “나주 읍성 내 이로당(옛 주사청) 400년된 명품 해송”, “왕곡면 송죽리 동백나무”, “공산면 상방리 호랑가시”, “다도면 토종 배나무”, “불회사 연리지” 등이 유명하다.

산림청의 전국 보호수 지정현황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보호수 중 약 3분의1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총 4105그루를 보유 중이다. 이 중 나주시 지역 보

호수는 총 891그루로 도내 약 5분의1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산림청에서 펴낸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책에는 전남지역 보호수는 18그루가 책자에 실렸지만 나주시 지역 보호수는 단 한그루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나주시는 이번 조사연구용역을 통해 천연 목사고을을 나주시만의 특색있고 고유한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보호수는 지역민의 숨결과 애환, 유구한 역사·문화가 담겨있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며 “이번 조사연구용역을 통해 보호수가 갖는 역사적인 가치를 발굴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 농특산물 판매 장성호 수변길마켓 재개장

추석맞이 다양한 알뜰 행사 마련

장성군이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마켓이 주말인 2일부터 다시 운영된다. 주말 평균 1만명이 찾는 장성호에 위치한 수변길마켓은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상품으로 큰 사랑을 받아 왔다. 하절기 임시휴장 기간을 거쳐 이번이 재개장하게 됐다.

포도 등 싱싱한 제철과일부터 갖 수확한 신선채소, 편백나무 가공품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풍성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수변길 입장료 3000원을 냈을 때 되돌려받는 3000원권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장성군은 이번 주말 재개장을 기념해 지역 농산물로 구성된 사은품을 고객들에게 증정한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알뜰한 명절 준비를 도울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호 수변길마켓을 재개장하게 됐다”며 “관광의 재미를 더하고 농가소득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군수 이병노·오른쪽 네번째)과 순창군,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31일 담양호 용수 공급을 위한 순창 도수터널 차수벽 철거에 합의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호 유입 순창 도수터널 차수벽 철거 합의

담양군, 13년 숙원 해결

담양군이 담양호 간접유역인 순창 도수터널의 차수벽(물막이벽)을 철거하기로 하면서 13년 숙원을 해결했다.

담양군과 순창군,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순창지사, 순창군 구립면 주민대표단은 지난 31일 순창군 구립면 도수터널의 차수벽을 철거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순창군 구립면 도수터널에서 24% 비중의 물이 간접적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 가뭄이 발생하면서 순창 주민들이 2m 높이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유입 수량이 줄어들어 담양호 평년 저수율은 50% 미만으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 봄 갈수기에는 최저 28%까지 내려갔다.

담양호는 담양군 6개 면 외에도 장성군과 광주

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수원이다.

담양군은 물 부족으로 인해 제한 급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농업용수 공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순창군과 논의를 벌였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안을 제시하며 10여 차례의 면담을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이후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7월26일 순창군 구립면 이장회의 때 주민설명회를 열어 차수벽 철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1일에는 업무협약을 맺고 차수벽 철거와 순창군 금과면에 담양호 하천수 유입 등 상생에 위한 다양한 현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차수벽이 철거되면 평년 저수율이 20% 상승하는 효과와 함께 10일만 여유 수량을 취수하더라도 800만t(담양호 저수율의 10%)을 확보할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 “복숭아 탄저병 재해보험 포함 필요”

368농가 집중호우 낙과 피해

올해 여름 계속된 집중호우로 화순지역 복숭아 재배 농가 368가구가 낙과 피해를 봤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역에서 복숭아 낙과 피해를 겪은 농가는 모두 368가구로, 피해 면적은 134.5ha에 달한다. 올해 들어 화순지역에는 이상저온과 집중호우, 탄저병 등 악재가 겹치면서 복숭아 수확량이 예년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피해 면적 1ha당 249만원의 농약대비를 지원하고 있다. 화순 복숭아 농가가 지원받을 농약대는 모두 4억5000만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화순군은 복숭아 피해면적이 전체 재배 면적의 7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 대상 병충

해·질병에는 탄저병이 포함되지 않아 복숭아 재배 농가가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화순군과 농림축산식품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최근 지역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다.

화순군은 정부와 신정훈 국회의원에게 복숭아 탄저병을 농어업 재해보험 재해보상 규정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에 피해를 크게 본 다년생 작물에도 농작물을 다시 심을 때 주는 대파대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화순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냉해 피해에 이어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재해 보상금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양재 기자 by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